

두견이 울어 진달래 피어나고

기태완

4월은 잔인한 달, 진달래가 온 산을 불태우는 계절입니다. 빈 강의시간에 잠시 틈을 내어 교정의 소나무 사이로 펼쳐진 진달래숲을 거닐었습니다.

언제였던가? 수년 전 어느 봄날, 나는 영암의 월출산 아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주변의 울창한 숲속엔 때마침 진달래꽃들이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봉어들의 입질이 왕성할 오전 시간이었건만 웬일인지 어선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나는 하릴없이 미끼만 갈아 끼우며 맑은 햇살이 부서지는 수면 위의 붉은 찌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가, 등뒤의 숲에서 문득 처량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낚시대를 팽개치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의 주인을 찾아 헤매기 한 시간여 만에 마침내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대했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소쩍새는 밤에만 온다고 하였던가요? 그리고 누가 올빼미는 낮눈이 어둡다고 하였던가요? 내 눈앞에서 그 조그만 소쩍새(소쩍새는 올빼미목의 새임)는 클라이더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곡예비행을 하듯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유유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녀석이 사라져 버린 숲속은 다시 침묵에 잠기고 여기저기 붉은 진달래꽃만 비단폭처럼 무리 지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였던 주인공은 소쩍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전생의 기구한 원한을 지니고 봄날에 진달래를 피워 낸다는 슬픈 마술사, 두견이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거이(772~846)의 <산석류>입니다. 산석류는 바로 진달래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두견화라고 하는데, 두견이가 한 멧힌 피를 토하여 피워내는 꽃이라 하여 그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두견이는 두우杜宇, 두백杜魄, 촉혼蜀魂, 망제望帝, 원조怨鳥, 자규子規, 불여귀不如歸, 귀촉도歸蜀道, 사표謝豹 등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전국시대 촉왕蜀王 두우杜宇와 관련된 설화에서 비롯된 이름들입니다.

두우는 처음 하늘에서 내려와 촉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망제望帝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치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초楚 땅에서 죽은 별령離靈이라는 자의 시신이 강을 거슬러 와서 문득 소생하여 망제를 뵈니, 망제는 그를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山石榴，
 一名山躑躅，
 一名杜鵑花，
 杜鵑啼時花撲撲。
 九江三月杜鵑來，
 一聲催得一枝開。
 江城上佐閑無事，
 山下屬得廳前栽。
 爛漫一欄十八樹，
 根株有數花無數。
 千房萬葉一時新，
 嫩紫殷紅鮮麴塵。
 淚痕衰損燕支臉，
 剪刀裁破紅綃巾。
 謫仙初墮愁在世，
 姹女新嫁嬌泥春。
 日射血珠將滴地，
 風翻火焰欲燒人。
 閑折兩枝持在手，
 細看不似人間有。
 花中此物似西施，
 芙蓉芍藥皆嫫母。
 奇芳絕艷別者誰？
 通州遷客元拾遺。
 拾遺初貶江陵去，
 去時正值青春暮。
 商山秦嶺愁殺君，
 山石榴花紅夾路。
 題詩報我何所云？
 苦云色似石榴裙。
 當時叢畔唯思我，
 今日欄前只憶君。
 憶君不見坐銷落，
 日西風起紅紛紛。

산석류는
 일명 산적촉이고
 또 다른 이름은 두견화인데
 두견새 울 때 무성히 피어난다네
 구강의 삼월에 두견이가 날아와
 한 울음으로 한 가지를 재촉하여 피워낸다네
 강성의 상좌는 한가히 일도 없어
 산 아래 터를 깎아 청사 앞에 심었네
 난만한 한 꽃밭에 열여덟 그루인데
 뿌리와 줄기에 숫자가 있으나 꽃은 헤아릴 수 없네
 천 봉오리 만이 파리 일시에 피어나니
 연분홍색 진홍색과 담황색이 선명하네
 눈물자극 연지뺨 뺨에 젖어 있고
 가위로 붉은 비단 두건을 마름질했네
 적선이 막귀양와서 세상에 근심 띠고 있고
 소녀는 갓 시집와 봄기운에 취하여 아리답네
 햇살이 핏빛 진주를 비추어 땅에 방울지려 하고
 바람이 화염을 뒤집어 사람을 태우려 하네
 한가히 두 가지를 꺾어 손에 쥐고
 자세히 보니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네
 꽃 가운데 이것은 서시와 같으니
 부용과 작약은 모두 모모 같은 추녀일 뿐
 기이한 꽃의 아름다움과 이별한 사람은 누구이던가?
 통주의 좌천객 원습유라네
 습유는 처음에 좌천되어 강릉으로 떠났는데
 떠날 때는 바로 푸른 봄이 저물 때였네
 상산과 진령에서 수십 어렸던 그대
 산석류꽃이 험로에 붉게 피어 있었지
 시 지어 나에게 뭐라고 알렸던가?
 꽃색이 석류빛 치마 같다 하였지
 그때 꽃무리 곁에서 나를 오로지 그리워하였는데
 오늘은 꽃밭 앞에서 다만 그대를 그리워하네
 그대 생각해도 볼 수 없어 울적히 앉았는데
 해 기울고 바람 일어 붉은 꽃잎만 분분하네

(백居易白居易〈산석류, 기원구山石榴, 寄元九〉)

당시 측 지역에는 수해가 심했는데, 별령이 수로를 뚫고 목책을 세워 많은 치수의 공을 쌓자, 망제는 자신보다 덕이 높다고 여겨 그에게 선양을 하고 서산西山으로 들어가 은거하였습니다. 그 뒤 망제는 끝내 복위하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죽어서 두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초봄에 두견새가 울면 그 애절한 소리에 측 땅의 백성들은 망제의 혼이 왔다고 하여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견이가 울면서 토한 피가 진달래로 피어난다고 여겼습니다.

이 설화로 인하여 훗날의 시인들은 두견이를 읊던지, 진달래를 읊던지 간에 대체로 이 둘을 결부시키는 것이 한 관례가 되었습니다.

위 백거이의 시 또한 망제의 설화에 의거하여 진달래가 피는 사연을 맨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눈물자국이 젖어 있는 연지빛 뺨, 가위로 오려낸 붉은 비단 두건, 하늘에서 귀양온 신선의 근심 어린 모습, 갓 시집은 소녀의 봄기운에 취한 모습, 햇살이 아롱진 핏빛 진주, 바람에 나부끼는 불꽃, 천하 절색의 서시! 참으로 진달래의 아름다움을 형용하는 데 온갖 찬사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의 절친한 친구 원진元稹에 대한 그리움을 붙였습니다.

원진과 함께 신악부新樂府 운동을 주도했던 백거이는 자가 낙천樂天인데, 원화元和·장경長慶년단을 대표하는 중당中唐 시인입니다. 그의 시는 평이하고 통속적인 언어로 현실의 절곡을 잘 반영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의 유명한 장편 서사시 <장한가長恨歌>와 <비파행琵琶行>은 당시 가운데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시는 일찍부터 한반도에 전해졌는데, 한때 신라 상인들은 다투어 그의 시집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을 구해다가 서라벌의 귀족들에게 천금에 팔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일본에서도 백거이의 시집은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의 시가 것처럼 신라와 일본에서 유행하였던 것은 아마 쉬운 언어와 통속적인 가락으로 전하는 심금을 울리는 내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진달래를 볼 때마다 두견이의 정체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정 두견이와 진면목을 보면서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암사에서 나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 백 가지》라는 책에는 두견이가 빠져 있습니다. 두견이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새가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이 또한 현암사에서 최근에 출간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 가지》라는 책에 의하면 “두견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여름철새”이며, 그 울음소리에 대하여 “수컷 울음소리는 ‘홀딱 자빠졌다’거나 ‘쪽박 바귀쭈우’로 들리기도 하며, ‘꿏, 꿏, 교-킵쿄쿄’ 하고 6음절로 울기도 한다. 녀체 음절까지 높아지다가 낮아진다. 암컷은 ‘삐, 삐, 삐, 삐이’ 하고 운다. 날 때도 울고 밤이나 낮에도 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진 속 두견이의 모습은 빠꾸기와 흡사합니다. 또한 빠꾸기처럼 두견이도 남의 등지에 알을 낳아 번식한다고 하는군요.

한 울음으로 한 가지를 재촉하여 진달래꽃을 피운다는 새. 이제라도 터질 듯 통통하게 부른 저 꽃망울들이 다 피고 지기 전에 올해는 망제의 슬픈 화신을 꼭 한 번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을 쓴 기태완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 (한국한문학 전공) 했다.
현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홍익대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에 《黃梅泉詩 研究》, 역서에 《東詩話》 《精言妙語》 《據梧齋集》 《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